"광주·전남 그린 인프라 정책 강화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프로젝트 제안
도시재생·숲가꾸기 등 정책 융합, 활성화 조례 제정도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환경, 경관, 관광분야 등에 효과가 있는 '그린 인프라' 구축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식변화,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송태갑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광전 리더스 Info 제147호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최근 유럽공동체, 미국, 싱가포르 등의 경우 '그린 인프라' 정책을 보다 강화해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조경 등 일부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녹지 차원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로 '그린 인프라' 관련 정책적 접근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송 위원은 "그린 인프라의 개념, 기능 및 효과, 그리고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경관, 관광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 정책을 제안했다.

또 "그린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그린 인프라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미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민간영역의 경우 마을단위, 읍면동단위 등 생활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은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시·군·구 지자체별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천방안으로 도시계획, 도시 재생사업, 숲 가꾸기, 섬 가꾸기,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린 인프라 활성화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영광법성진성 숲쟁이공원, 담양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과 같이 지역대표 그린 인프라 자원을 더욱 확대해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영산강, 무등산, 국도77호선 주변, 경전선 주변, 해안 및 갯벌 등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광주전남의 상생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와 전남이 '그린 인프라 공동브랜드 선언'을 선포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 광주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복지재단, 민·관·정·학 간담회

정책 연구환경 개선·사업 특성화 논의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1일 빛고을노인복지타운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복지계 및 민·관·정·학 주요 인사 40명을 초청해 재단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직원들이 뜻을 모아 혁신안을 마련하고 내·외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심한 결과물을 지역 복지계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신일섭 대표이사는 재단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에 기반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재단 발전을 위한 운영방향을 밝혔다.

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사회공헌 중심으로, 효령노인복지타운은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각 타운의 사업을 특성화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과업으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 사회복지 학과장을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는 연구인력 확충과 현안 위주의 소극적 연구보다 미래지향적 연구를 주문했다. 사회복지현장 직능단체는 재단이 복지 싱크탱크로서 주도적으로 광주복지를 이끌어 갈 것을 주문했다.

나현 시의원은 "타운의 개방은 환영하며 인력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공감했으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신수정 시의원도 "시의회, 행정, 현장이 함께하는 협치가 중요하다"며 각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대표이사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양 타운 본부장이 임용됨에 따라 재단이 비로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갖춰진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재단 운영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자치 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2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컨퍼런스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치분권·지역상생 영호남 대토론회 성료

시행계획 개선 대안 논의

영호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치분권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광주시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대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4년째 광주와 대구에서 해마다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대구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삶의 질과 지역정책 등 주제로 1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광주·대구 분권협의회가 참여한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위민연구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을 꼽고,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권범 기자

"어린이통학 경유차 LPG로 바꾸세요"

광주시, 2차 지원사업 1대당 500만원 총 53대 지원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하면 차량 구매비로 1대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급, 총 53대에 2억6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다.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1차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61대에 3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최권범 기자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건립 본격화

한국관광공사, 100실 규모 설계공모…2020년 하반기 착공 목표

한국관광공사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리조트호텔 건립을 위한 설계를 공모한다.

전남 서남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칭)오시아노 리조트호텔 조성사업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공개공모로 추진되며, 설계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1부지에 연면적 1만1천600㎡ 규모의 객실, 부대시설, 운영지원시설 등이 포함된 호텔과 직원기숙사, 야외풀이 동반된 옥외시설 등을 설계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객실과 부대시설을 제안해야 하며 해안가 언덕에 위치한 부지의 장점을 극대화해 시설 자체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총 5작품을 선정하며 1등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총 3인까지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상기 조건을 갖춰야 한다. 참가등록은 오는 9월20일까지이며, 작품접수일은 11월8일이다. 이후 기술심사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김찬중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비롯, 김태영(한국예술종합학교), 민성진(SKM건축사사무소), 서현(서울대학교), 윤승현(중앙대학교), 전숙희(와이즈건축사사무소/예비심사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1등 당선작(1작품)에게는 설계권이 부여되고 2등은 4천만원, 3등 3천만원, 4등 2천만원, 5등 1천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임채만 기자